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전면 해제

✚ 5월 16일 이후 추가발생 · 임상 · 혈청검사 이상 없어

지난 3일부로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지난 5월 16일 경기 연천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며 임상 ·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 이동제한 해제 요건에 따라 지난 3일부로 가금류에 대한 전국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 요건에 따르면 최종 매몰 등 방역조치 완료 이후 30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가금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의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 · 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8월 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AI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AI 병원체가 철새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7일~올해 2월 13일까지 야생조류(큰고니, 청둥오리, 가창오리, 원앙, 수리부엉이, 매 등)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0건이 검출됐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 · 도, 25개 시 · 군 · 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 · 오리 647만2000마리가 매몰 · 처분됐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7월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공모

✚ 이상길 · 이주호 · 박용호 씨 응모

▶ 왼쪽부터 박용호 교수, 이주호 전 검역원장, 이상길 실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공모 마감 결과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주호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3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길 실장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 후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축산국장, 산림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주호 전 원장은 수의학 박사로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을 역임했다. 박용호 교수는 위싱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의미생물학 박사과정을 이수했으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7월 8일

한 · EU FTA 발효, 동물약품에서는 효과 미미

한 · 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유럽에서 들여오는 동물약품의 원료와 완제품 가격이 낮아지지만 유럽에서 수입하는 동물약품의 원료와 완제품이 많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달 1일 한 · EU FTA가 발표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표와 협정세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업체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에서 수입되는 완제품이나 원료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 관세가 대폭 낮아지는 일부 품목도 이미 양허관세가 적용돼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나 업체의 이익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관세가 596%로 높게 적용되고 있는 참기름과 그 분획물의 경우는 동물약품업체에서 일부 주사제의 부형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양허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동물약품 원료의 56%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완제품은 미국에서 47% 가량 수입되고 있다"며 "한 · EU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워낙 유럽수입량이 미미해 동물약품에서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중국이나 미국과의 FTA가 이행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7월 19일

2011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양돈산업재건 발전방안 모색

✚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태', '사상최악'. 이번 구제역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이제 '구제역'을 넘어 '재건'을 위해 달리고 있다. 유럽과 미국과의 FTA,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금지,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 굵직한 축산과제와 함께 재건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한국양돈수의사회가 양돈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조치원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1 한국양도수의사회 연례세미나'를 찾아 구제역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知彼知己, 세계 구제역 사례 통찰

연례세미나의 첫날인 6일, 20여명에 가까운 연사들은 구제역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쏟아 놓았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 중 눈에 띄는 것은 영국과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구제역 컨트롤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해외팀 요약 보고 시간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2001년 영국의 구제역 발병은 단일사례로는 가장 규모가 큰 구제역으로 1만347개 지역에서 양,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400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을 당했다.

영국은 '신속한 살처분, 감염동물 및 접촉 위험군에 대한 진단 및 도살정책'에 기반을 두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소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본은 2000년 봄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구제역 통제 조치에 총 89억엔이 소요됐다. 일본은 구제역을 컨트롤하기 위해 2만7000여개의 농가에서 6만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두달 동안 혈청학적 검사를 받게 했다. 이들은 혈청학적 예찰을 통해 각지역 내 감염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발표된 2001년 네덜란드 구제역 사례에서는 새로운 구제역 박멸 전략을 소개됐. 네덜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확진 됐을 때 이 국가로부터 최근 수입된 감수성 동물을 추척, 예방적 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의 분위기가 대규모 살처분을 강력반대하고 있는 만큼 OIE가 구제역과 관련해 NSP(비구조단백질) 검사를 통한 예방 접종된 동물의 컨트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돈업, 미래를 준비하라

틀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구제역 이후 문제가 될 질병들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고찰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돼지 살모넬라 감염증, 양돈장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청정화 사례, 국내 PRRS 바이러스 변이주의 교차반응 등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대안으로 회장염 백신을 제시한 오유식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주제발표는 같은 날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조치 후 유럽의 상황을 발표한 독일 수의공무원 아노 피온코프스키 박사의 지적과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노 박사는 "유럽은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면서 회장염 등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백신을 사용하고 예방에 힘쓰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7월 14일

2만여 축산농가,FTA 축산업선진화대책 반대 대규모 집회

2만여 축산농가의 성난 농심이 여의도를 흔들었다.

한우농가 1만4000여명을 위시해 전국의 양돈, 낙농육우, 양계, 오리, 양봉농가까지 축산농가 2만여명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사진〉를 개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선대책 없는 FTA를 반대하고 축산농가를 위해 생존대책을 수립하라며 투쟁 단결을 선언했다. 특히 축산업을 규제하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극렬히 반대하며 축산업 허가제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수입망령에 빠졌다고 조소하며 "정부가 FTA 체결에 혈안이 돼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사이 축산농가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은 뒷전인 채 축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을 빌어 축산농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축산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생존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7월 13일

〈기획특집〉무항생제 축산 '연착륙'을 애기하다 [2]항생제 금지 후, 유럽은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조치를 처음으로 논의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데이터나 비교자료들은 대부분이 유럽의 것이었다. 사양환경이나 축산의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이한 축산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었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농가도 있었다.
선진축산의 대명사, 유럽. 그들은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후 그들의 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항생제, 이익과 직결

항생제는 성장촉진과 증체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 미국 FDA는 1951년에 수의사의 처방없이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유럽도 위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항생제는 성장촉진용 항생제로 승인,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줄곧 사용해 왔다.
사료용 항생제는 경제적으로 농가에게 큰 이득을 줬다. 1999년 유럽의 한 축산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용 항생제는 일당증체량과 사료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미쳤으며 육계에서는 3~5%, 돼지에서는 4~5%, 소에서는 10%이상의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효율이나 일당 증체량 뿐 아니라 균일도 향상 면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장내정상매생물총의 안정화, 환경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동물질병의 안정화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의한 내성균 증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으로 인한 친환경 축산물의 요구 등은 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SSC(과학 운영 위원회, The Scientific Steering Committee)의 1999년 5월 의견서에는 성장 촉진용으로 쓰이는 항생제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실제로 유럽 등지에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풍선효과 불러와

유럽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해왔다. 특히 덴마크는 2000년부터 금지하는 등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인한 내성세균 발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돼 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을까. 표1을 보면 정책과 현실이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은 1999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전체적인 동물용항

생제 사용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금지 된 2006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는 우려했던 대로 생산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덴마크 수의식품국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금지 조치 이후 이유자돈의 폐사율은 약 2% 상승했고 일당증체량은 20g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성 하락에서 비롯된 경영비 상승으로 실제 일부농가들에서는 항생제 사용량이 매우 많은데다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저항 포도상구균의 내성균이나 살모넬라가 상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옐로 카드 제도, 모니터링으로 항생제 사용량 제제

이 같은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제제조치를 시작했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 농장에 옐로우 레터, 즉 경고장을 발송한 것. 경고를 받은 농장은 9개월 내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이 조치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택했다.

2013년까지 항생제 총 사용량의 50% 감소를 목표로 수의사들의 제안에 따라 농장의 항생제 사용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임상실험을 통해 마리당 항생제 하루 사용 평균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농장인 '검은 양(Black Sheep)' 을 걸러내기 위해 유럽연합의 모든 농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 단계적으로 항생제 사용 줄여야

현재 유럽도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배합사료내에서 사용이 금지됐을 뿐 현장에서의 사용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와 시대의 대세가 친환경, 무항생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농가와 축산업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유럽에서도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면서 풍선효과와 함께 회장염 등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신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유럽 현지 수의사들에 의하면 유기산, 엔자임, 천연 허브, 미네랄 등을 원료로 하는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실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수의공무원인 아르노 피온코프스키 박사는 "수의사들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농장주의 수익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무항생제와 친환경 요구에 따라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된다. 심머 후고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 본사 마케팅 담당자는 "농장은 모든 질병의 진단, 방역, 예방에 있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모든 항생제의 사용을 중단하기 보다는 농장에 맞는 질병 방역 시스템을 갖춰 단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아노 피온코프스키 박사〉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2006년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거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로 생산성 등의 산업 외형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의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노 피온코프스키 박사는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이 주선한 인터뷰자리에서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후를 걱정하고 있는 한국에게 걱정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사료회사에서는 자돈사료에 양질의 단백질을 첨가해 자돈단계에서 충분한 영양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적 방어 개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생, 소독 등의 외부적 여건을 만족시켜야지요." 아노 박사는 무항생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보다 철저한 사양관리를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는 사육단계를 나눠 사육을 합니다. 때문에 단계별 관리가 더욱 철저하고 용이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육단계별로 사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등 동물복지적인 개념의 사양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7월 13일

5개 메이커 모두 생산여건 적합성 확인

✚ 초점/ 윤곽 드러난 FMD 백신 국내생산 프로젝트

TF팀 심사 결과 탈락업체 없이 시제품 생산 참여
국내 분리주 항원, 해외서 개발 공급 · 기술 이전
5개 메이커 컨소시엄 구성…단가계약 등 공동대응

"5개 메이커 참여", "업체 컨소시엄 구성", "국내 분리주 항원', '내년 하반기 공급' 등. FMD 백신의 국내 생산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FMD 백신 국내 생산 TF팀(팀장 이중복)은 지난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생산 업체 선정 등 FMD 백신 생산 일정과 방법을 조율했다.

우선, TF팀은 심사 신청서를 낸 5개 국내 백신 메이커를 두고, 서류평가 및 실사한 결과, 탈락자 없이 모두 FMD 백신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들 5개 메이커는 외국 항원 공급 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시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품질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최종 생산업체 선정에서는 탈락할 수 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번 심사의 경우, 제조 시설 등 기본적인 생산 여건만을 확인했다. 아직은 백신 생산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외국 백신 공급업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항원과 부형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국내 생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문인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FMD 백신 생산은 당초 "내년 초부터 공급한다"는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리주 항원을 백신에 담으려는 의지 때문. 외국 기업들이 국내 분리주를 가지고 항원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물 도출에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하반기에나 국내 생산한 FMD 백신이 농가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국내 분리주 항원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기존 'O1 Manisa' 형이든, 국내 분리주 항원이든 방어범위, 항체형성 등에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섣불리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TF팀은 앞으로 걸림돌이면서도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항원 공급업체 선정, 항원 수입가격, 공급시기, 기술전수 내용, 비용지불 방법 등 외국 기업과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5개 메이커에게 맡기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이 백신구입에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데다, 지자체가 백신공급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개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5개 메이커 역시 각각 항원 공급업체를 선정해 항원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한 백신메이커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꾸린다고 해도, 항후 백신가격,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FMD 백신은 국가 방역 등 공익적인 개념이 강하다. 정부가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7월 20일

마커백신 활용 돈열 청정화 '이상기류'

OIE 전문가그룹, 감별신뢰도 등 의구심 제기
"국제적 공인 없인 무용지물"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나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커백신을 통한 돈열청정화를 두고, OIE로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송재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질병과장은 "최근 열린 OIE 전문가그룹에서는 마커백신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마커백신 효능에 의구심을 보냈다. 특히 마커백신의 임신돈 방어율과 감별신뢰도 문제를 꺼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에서의 마커백신 사용사례 등을 OIE에 제시해 마커백신 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OIE에서는 한국에서의 마커백신 접종효과를 알고 싶어한다. 자칫 마커백신을 통한 돈열청정화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마커백신을 활용할 경우, 3개월 기간(발병농장 살처분 조건)만으로 돈열청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는 OIE에서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앞으로 OIE 전문가그룹의 돈열청정화 조건 논의에 따라 기존의 생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을 끝내고, 1년 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그룹은 의견결정 그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수환 돼지 FMD · 열병박멸대책위원회 위원은 "마커백신은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전파나 잔존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마커백신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해 청정화를 일궈낸다면, 국내 수의계 위상을 드높이는 한 획이 된다. 마커백신의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 수의학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당시 국내 수의업계 노력으로 마커백신을 이용한 청정화 방안을 인정받았다. 지금에 와서 안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커백신에 홀린 수많은 땀방울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7월 20일